

I. 연 혁

History of Yeongam County

우리 군의 연혁



우리군은 많은 지석묘군과 타제석기, 패총 등이 다수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고, 영암만과 도포만, 남해만 등으로 이루어 주변 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고대국가 성립기에는 마한 54국 중 최후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월지국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백제에 복속되었다. 당시에는 월나군(月奈郡)이라 불렸으며, 왕인박사가 일본 응신천황의 초청으로 도일한 것으로 미루어 문화수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영암군이라 불렀으나 고려 성종(高麗成宗) 16년(997)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낭주(朗州)라 개칭되었다가 고려 현종(顯宗) 9년(1018)에 다시 영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고려 현종 당시에는 현 강진군인 도강현(道康顯)과 죽산현(竹山顯), 그리고 해남군인 화원현(花源顯)이 모두 낭주에 속하였다.

현재 해남군에 소속되어 있는 옥천, 송지(玉泉, 松脂)가 백제시대로부터 냉천부곡(冷泉部曲)낭주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조선 세종(世宗) 3년(1421)에 다시 해남으로 편입되었다. 금정면, 시종면도 나주에 속해 있다가 조선 고종(高宗) 28년(1891)에 영암으로 편입되었고 현재 완도군에 편입되어 있는 소모도(小毛島)는 백제시대 때 월나군(月奈群)에 속해 있다가 조선 고종 33년에 다시 완도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조선 순종때에 옥천시면, 옥천종면, 북평종면, 송지시면, 송지종면(玉泉始面, 玉泉終面, 北坪終面, 松脂始面, 松脂終面)의 남부 6면을 분할하여 해남으로 이속하였다.

1944년(甲申)에 조선 읍면폐합령이 공포되어 11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79(己未)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항 영암면을 영암읍으로 승격한 데 이어, 2003년 5월 1일 삼호면이 삼호읍으로 승격되어 2읍 9개면의 현 행정구역이 되었다.

